國博 조선실·대한제국실 새 단장

16일 재개관… 대동여지도·의궤 등 542점 전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12월 16일 상설전시실 조선실과 대한제국실을 새롭게 단장해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했다. 지난해 고려실 개편에 이어 중근세관 개편 사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이번에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조선과 대한제국 역사의 주요 사건을 시기순으로 정리하고 전시품이 지니는 역사적 맥락과 기능을 상세하고 있는 부분이다.

조선 건국과 유교 이념의 전파, 17세기 전란 이후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한 대동법(大同法)의 시행과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1897년 자주 독립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제국의 선포와 근대화 노력이라는 주요 변화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1592년 임진왜란과 1636년 병자호란을 보여주는 공간과 조선 17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양상을 제시하는 공간도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대표 소장품인 활자·의궤·청화백자·마패·동국대지도·대동여지도를 관람객이 보다 쉽게 찾아서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배치에 신경을 썼다.

높이 2.7m에 이르는 희귀한 대형 지도인 '동국대지도'와 여러 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전시할 수 있는 대형 진열장을 새로 제작해 지도 규모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새로운 진열장에 배치돼 일반에 공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조선과 대한제국기는 현대와 가장 가까운 시기이므로 당시 사람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택과 의지가 오늘날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번 조선실·대한제국실 개편으로 사회 변화의 원인과 영향 관계를 해석하고, 현재의 사회를 돌이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국 박물관 소장품 정보 공개한다

박물관 소장품 정보 검색 'E-뮤지엄' 전면 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12월부터 국·공·사립박물관 소장품 정보와 이미지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과 함께 '이-뮤지엄 사이트(emuseum.go.kr)'에서 제공한다.

'이-뮤지엄'은 국가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박물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 개설됐으며, 리뉴얼을 통해 전면 개편했다.

새로운 이-뮤지엄 사이트에서는 키워드 검색을 기본으로 소장기관, 지정문화재, 국적, 시대, 재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장품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사용 목적만 입력하면 검색한 자료의 이미지를 내려 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2015년~2016년 추진된 국가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성과로서, 112개 박물관 29만 건의 소장품 정보와 70만 장의 이미지이다. 이 가운데에는 A4크기의 도록 인쇄가 가능한 600만 화소 이상의 이미지 12만 3천여 장이 포함되어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2020년까지 전국 700여 박물관의 소장품 500만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더 많은 정보들이 이-뮤지엄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고해상도 이미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박물관 소장 자료들이 학술연구, 교육, 출판, 인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그리스 비극 '엘렉트라', 불교를 만나다

극단 춘추, 25일까지 '엘렉트라 인 서울' 공연

불자 극작가 김영무 각본 집필
윤회를 비극의 배경적 장치로
정욱 등 베테랑 배우 호연 '기대'
"희랍비극의 한국화 시리즈 탄생"

소포클레스(Sophocles)는 그리스 신화의 엘렉트라를 희곡으로 집필했다. 기원전 410년 경 만들어진 소포클레스 희곡 〈엘렉트라〉에서 엘렉트라는 아버지 아가멤논 왕을 살해한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를 극단적으로 증오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소포클레스는 엘렉트라가 자신의 가혹한 운명과 맞서 싸우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친부를 살해한 친모를 죽여 정의를 지키려는 한 인간의 내면적 고뇌를 통찰력 있게 그려내고 있다.

그리스 유명 비극 '엘렉트라'를 불교와 한국적 정서로 풀어낸 연극이 공연된다. 극단 춘추는 오는 12월 25일까지 서울 대학호 아트홀마리카2관에서 '엘렉트라 인 서울'을 공연한다.

'엘렉트라 인 서울'의 극작은 불자인 김영무 극작가가 맡았다. 김 작가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 엘렉트라를 오늘날의 서울로 데려온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상상으로 작품 집필을 시작했다. 〈반야심경으로 보는 불교 사상〉을 저술할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던 그는 그리스 비극 구조의 배경에 불교의 윤회 사상을 대입해 극을 풀어냈다.

김 작가는 "그리스 비극의 미학 구조는 신의 짓궂은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충돌함인데, 오늘날 서울에는 맞지 않았다. 그래서 불교의 윤회 사상을 환경적 배경으로 대입했다"고 설명했다.

작품은 서울 근교 세업사라는 사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업을 씻는다는 뜻을 지닌 '세업사'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화해, 그리고 또 다른 갈등과 복수, 다음 생에 대한 기대의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주인공 애라는 15년 전 정부와 공모해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어머니에 대한 복수와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다. 애라는 세업사에서 스님이 된 오빠 우공 스님을 만나게 되고, 우공 스님은 누이에게 원한을 버리라고 조언한다. 어머니를 만나게 된 애라는 복수의 칼을 뽑아 들지만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이내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이번 연극에 대해 김혜주 동서울대 연기예술과 교수는 "엘렉트라를 그대로 옮겨 놓은 주인공 애라는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정부를 살해함으로써 용서라는 대장정의 주제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불교의 업·윤회사상을 풀어나감에 있어, 한 종교의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중용의 관점으로 해석해 나간 작품"이라고 평했다.

'엘렉트라 인 서울'은 탄탄한 연기력의 정욱(무법 스님 역), 송수영(박기수 역), 민경옥(류여사 역) 등 중견배우와 이윤희(애라 역), 김세홍(우공 스님 역), 박미정(애리 역) 등 젊은 배우들이 신선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더 눈길을 끈다.

한편, 연극 '엘렉트라 인 서울'은 평일 7시30분, 토요일 4·7시, 일요일 4시에 공연이 진행된다. 일반 25,000원, 학생 15,000원. 문의 (010)3735-2802

신성민 기자

곡선으로 그려낸 한국 山水의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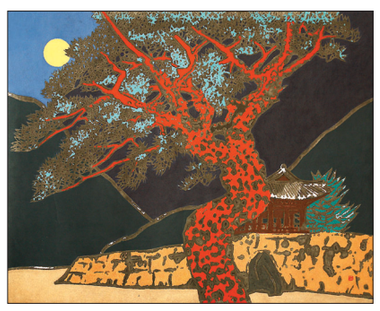
임무상 화백, 12월 27일까지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초대전

산·소나무·달, 곡선美로 표현

임무상 화백은 한국적인 정서를 화두로 곡선미학을 화폭에 구현해 내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그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임 화백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3층 개관을 기념하는 초대전 '곡선미의 찬가-산, 소나무, 달 그리고'를 개최한다.

임 화백은 자연을 관조하는 예술가이다. 미인도의 대가인 운정 김흥종 화백으로부터 사사한 임 화백은 1985년 중앙미술대전에 입선하며 국내 미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이탈리아, 인도 등에서 22차례 개인전을 열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현재 프랑스 파리 셀렉티브 아트 갤러리(Selective Art Gallery)의 전속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임무상 화백의 작품 '조령교구정(鳥嶺交龜亭)'

임 화백의 화풍은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염료들을 그림의 재료로 사용하는 등 한국만의 색채를 진하게 나타낸다. 작품들은 힘과 깊이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표현력에 있어서 커다란 온화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곡선으로 표현된 산수들은 '한국적'이라는 정체성의 풍취로 화폭을 채워낸다.

이번 전시 작품에 대해 임 화백은 "오랫동안 많은 스케치를 통해 얻어진 풍광이나 형상들을 탐구하고 재해석해 탄생된 작품들"이라며 "하나의 테마나 어떤 유형의 방법이나 아류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자유롭고 자연스러움에 접근해 보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곡선으로 본 자연의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추구해 온 나의 조형언어로 다양하게 풀어 본 작업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경화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관장은 "임 화백은 한국화의 전통적 회화기법에서 일정부분 벗어나 있으면서도 절제돼 있다.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단순미는 우리에게 깊은 인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특히 임 화백의 금강산 그림들은 분단 60여년의 한국을 위한 통일 희망찬가라고 할 수 있다"고 평했다. (02)722-9969

신성민 기자

생명·평화·환경 주제로 하루헌, '밥 묵자' 展

선진 스님 기획… 6~18일 개최

인터넷 카페모임 '하루헌'을 운영하는 대구 보현암(주지 선진)는 카페 회원 중 예술작가 30여명과 함께 생명·평화·환경을 주제로 한 13번째 전시회 '밥 묵자'를 개최했다. 12월 6~18일 대구 범어도서관 갤러리서 열린 이 전시회는 설치미술·회화·조각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주지 선진 스님은 이번 주제인 '밥'에 대해 "빈부격차가 심한 요즘, 공동체 의식을 되찾고자 '밥 묵자'란 주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 보현암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하루헌이 개최한 전시회 개막 모습.

전국 어디든 지극하고 여법하게 깊은 신심으로 다하겠습니다

바라밀 예술단

바라밀예술단은 큰스님들의 행사를 더욱 장엄하고 여법하게 봉행하는데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바라밀예술단 단장 지우 스님

회심곡, 영산대재, 산사음악회, 예수재, 천도재, 위령재 및 봉안위패, 점안식 등 각종 불교행사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천상무춤, 북춤, 살풀이춤, 극락무춤, 지전무 등 모든 의식











행사문의 010-3597-1515 유튜브에서 '지우스님'을 검색하세요.

농협 010-3597-1515-09 (예금주 : 반야정사)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